

◆ 07-6평 52~56번

[52~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런데 그 가을의 어느 날이었다. 이미 가끔씩 노환으로 자리보전을 하던 석담 선생은 그날도 병석에서 일어나기 바쁘게 종이와 붓을 찾았다. 그것도 그 무렵에는 거의 쓰지 않던 대필(大筆)과 전지(全紙)였다. 벌써 몇 달째 종이와 붓을 가까이 않던 고죽은 그런 스승의 집착에 까닭 모를 심화를 느끼며 ㉠ 먹을 갈기 바쁘게 스승 곁을 물러나고 말았다. 어딘가 모르게 스승의 과장된 집착에는 제자의 방향을 비웃는 듯한 느낌이 드는 데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동안 뜰을 서성이는 사이에 그는 문득 늙은 스승의 하는 양이 궁금해졌다.

방에 돌아오니 석담 선생은 붓을 연적에 기대 놓고 눈을 감은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바닥에는 방금 쓰다가 그만둔 것인 듯 ‘萬毫齊力(만호제력)’ 낙 자 중에서 앞의 석 자만이 씌어져 있었다.

“소재(蘇齋)*는 일흔여덟에 참깨 위에 ‘天下泰平(천하태평)’ 낙 자를 썼다고 한다. 나는 아직 일흔도 차지 않았는데 이 낙 자 ‘萬毫齊力’을 단숨에 쓸 힘도 남지 않았으니…….”

그렇게 탄식하는 석담 선생의 얼굴에는 자못 처연한 기색이 떠올랐다. 그러나 고죽은 그 말을 듣자 억눌렀던 심화가 다시 솟아올랐다. 스승의 그 같은 표정은 그에게는 처연함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만만함으로 비쳤다.

“설령 이 글을 단숨에 쓰시고, 여기서 금시조(金翅鳥)*가 솟아오르며 향상(香象)*이 노닐듯, 그게 선생님을 위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고죽은 자신도 모르게 심술궂은 미소를 띠며 물었다.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힌 채 기진해 있던 석담 선생은 처음 그 말에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그러나 이내 그 말의 참뜻을 알아들은 듯 매서운 눈길로 그를 노려보았다.

“무슨 소리냐? 그와 같이 드높은 경지는 글씨를 쓰는 이면 누구든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이르러 보고 싶은 경지다.”

“거기에 이르러 본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고죽도 지지 않았다.

“㉡ 태산에 올라 보지도 않고, 거기에 오르면 그보다 더 높은 산이 없을까를 근심하는구나. 그럼 너는 일찍이 그들이 성취한 드높은 경지로 후세에까지 큰 이름을 드리운 선인들이 모두 쓸모없는 일을 하였던 말이나?”

“㉢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인 것입니다. 도대체 종이에 먹물을 적시는 일에 도가 있은들 무엇이며, 현묘(玄妙)함이 있은들 그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 도로 이름하면 백정이나 도둑에게도 도가 있고, 뜻을 어렵게 꾸미면 장인이거나 야공(冶工)의 일에도 현묘함이 있습니다. ㉤ 천고에 드러우는 이름이 있다 하나 이 나[我]가 없는데 문자로 된 나의 껍데기가 낯모르는 후인들 사이를 떠돈들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서화가 남겨진단 하나 단단한 비석도 비바람에 깎이는데 하물며 종이와 먹이겠습니까? 거기다가 ㉥ 그것은 살아 그들의 몸을 편안하게 해 주지도 못했고 헐벗고 굶주리는 이웃을 도울 수도 없었습니다. ㉦ 그들은 그 허망함과

쓰라림을 감추기 위해 이를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는 어떤 경지를 설정하여 자기를 위로하고 이웃과 뒷사람을 홀렸던 것입니다…….”

그때였다. 고죽은 불의의 통증으로 이마를 감싸 안으며 앞드렸다. 노한 석담 선생이 앞에 놓인 벼루 뚜껑을 집어던진 것이다. 샘솟듯 솟는 피를 흠치고 있는 고죽의 귀에 늙은 스승의 광기 어린 고향 소리가 들려 왔다.

“내 일찍이 네놈의 천골(天骨)을 알아보았더니라. 가거라. 너는 진작부터 저잣거리에 나왔아야 할 놈이었다. 용케 천골을 숨기고 오늘날에 이르렀으니 ㉠ 이제 나가면 글씨 한 자에 쌀 뒷박은 후히 받을 게다…….”

결국 그 자리가 그들의 마지막 자리였다. 그 길로 석담 선생의 집을 나선 고죽이 다시 돌아온 것은 이미 스승의 시신이 입관된 뒤였다.

벌써 삼십여 년 전의 일이건만 ㉡ 고죽은 아직도 회미한 아픔을 느끼며 이제는 주름살이 덮여 흉터가 별로 드러나지 않는 왼쪽 이마 어귀를 만져 보았다. 그러나 그와 함께 떠오르는 스승의 얼굴은 미움도 두려움도 아닌, 그리움 그것이었다.

“아버님, 김 군이 왔습니다.”

다시 추수의 목소리가 그를 끝 모를 회상에서 깨나게 하였다. 이어 방문이 열리며 초현(草軒)의 둥글넓적한 얼굴이 나타났다. 대할 때마다 만득자(晩得子)를 대하는 것과 같이 유별난 애정을 느끼게 하는 제자였다. 사람이 무던하다거나 이렇다할 요구 없이 일 년 가까이나 그가 없는 서실을 꾸러가고 있는 탓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글씨 때문이었다. 붓 쥐는 법도 익히기 전에 행서(行書)를 휘갈기고, 점획 결구(點劃結構)도 모르면서 초서(草書)며 전서(篆書)까지 그려 대는 요즈음 젊은이들답지 않게 초현은 스스로 정서(正書)로만 삼년을 채웠다. 또 서력(書歷) 칠 년이라고는 하지만 칠년을 하루같이 서실에만 붙어 산 그에게는 결코 짧은 것이 아닌데도 그 봄의 고죽 문하생 합동전에는 정서 두어 폭을 수준계 내놓았을 뿐이었다. 그러나 ㉢ 그의 글은 서투른 것 같으면서도 이상한 힘으로 충만돼 있어, 고죽에게는 남모를 감동을 주곤 했다. 젊었을 때는 그토록 완강하게 거부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윽하게 느껴지는 스승 석담의 서법을 연상케 하는 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 이문열, 「금시조(金翅鳥)」-

* 소재: 청나라 학자 옹방강의 호.

* 금시조: 불경에 나오는 상상의 큰 새.

* 향상: 상상의 큰 코끼리.

52.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중심인물들이 상대를 공박하며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 ② 대화를 통해 인물들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시간의 흐름을 비약시킴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연계하고 있다.
- ④ 사건을 병렬적으로 구성하여 이야기의 입체감을 높이고 있다.
- ⑤ 갈등의 양상을 첨예하게 그림으로써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5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석담’의 집착을 못마땅해 하는 ‘고죽’의 심리가 나타나 있다.
- ② ㉡: 예술의 드높은 경지에 대해 회의하는 ‘고죽’을 ‘석담’이 나무라고 있다.
- ③ ㉢: 재주는 많으나 자신의 뜻에 어긋난 ‘고죽’을 ‘석담’이 질책하고 있다.
- ④ ㉢: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잊어버렸던 ‘석담’에 대한 ‘고죽’의 원망이 되살아나고 있다.
- ⑤ ㉢: ‘초현’이 훗날 대가로 성장하리라는 ‘고죽’의 예감이 담겨 있다.

54. ㉠~㉢ 중, <보기>를 근거로 비판할 수 있는 것은? [1점]

<보 기>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현대 한국 독자들에게까지 소개되어 널리 읽히고 있다. 셰익스피어는 이 작품을 남겼다는 사실만으로도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존재로 평가받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55. 위 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예술이 갖는 효용성 문제에 대해 논란이 있군.
- ② 예술의 경지를 깨달아 가는 과정이 험난하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군.
- ③ 예술가로서 스승과 제자의 만남과 헤어짐을 작가는 극적으로 그려 내었군.
- ④ 예술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태도에 대해 작가는 잘못되었다고 말하느군.
- ⑤ 예술을 창조하는 이들이 겪는 정신적 고뇌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군.

56. ‘요즈음 젊은이들’을 두고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우물에 가 송냥 찾는다.
- ② 낮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 ③ 기지도 못하면서 뛰려고 한다.
- ④ 서당 개 삼 년이면 풍월 읊는다.
- 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 04년 4월 고3 15~19번

[15~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금부터 그걸 하나씩 내게 펴 보이도록 해라.”

초헌은 여전히 말없이 고죽이 시키는 대로 했다. 첫장은 고죽이 삼십 대에 쓴 것으로 우세남(虞世南)의 체를 받은 것이었다.

“우백시(虞伯施)의 글인데, 오절(五節=덕행, 충직, 박학, 문사, 서한)을 제대로 본받지 못했다. 왼쪽으로 미뤄놓아라.”

그 다음은 난초를 그린 족자였다.

“이미 소남(所南=정사초)을 부인해 놓고 오히려 석파(石坡=대원군)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했구나. 산란(山蘭)도 심란(心蘭)도 아니다. 왼쪽으로 미뤄 놓아라.”

고죽은 한 폭 한 폭 [자평(自評)]을 해 나갔다. 오랜 원수의 작품을 대하듯 준엄하고 냉정한 평이었다. 글씨에 있어서는 법체(法體)를 본받은 경우에는 그 임모(臨摹)나 집자(集字)의 부실함을 지적하고, 그리고 자기류(自己流)의 경우에는 그 교졸(巧拙)과 천격(賤格)을 닦하면서 모두 원편으로 제쳐놓았다. 그림에 있어서는도 마찬가지였다. 옛법의 엄격함에도 자신의 냉정한 눈까지 곁들이니, 또한 오른편으로 넘어갈 게 없었다.

새벽부터 시작된 그 작업은 아침 해가 높이 솟을 때까지 계속 되었다. 나중에 정박사가 몇 번이고 감탄했던 것처럼 거의 초인적인 정신력이었다. 아침부터 몰려든 사람들로 고죽의 넓은 병실은 어느덧 발디딜 틈 없이 뻘뻘해졌다. 그러나 엄숙한 기세에 눌려 누구도 그 과도한 기력의 소모를 말할 엄두를 못 냈다. 고죽도 초헌 외에는 아무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러다가 열 시가 넘어서야 분류가 끝났다. 결국 초헌의 오른 쪽으로 넘어간 서화는 단 한 폭도 없었다.

“더 없느냐?”

마지막까지 간절한 기대에 찬 눈으로 자신의 작품을 검토하고 있던 고죽이 더 이상 제자의 무릎 앞에 놓인 서화가 없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이상하게 불안에 떨리는 목소리로 물

[A]었다.

“네.” 초헌이 무감동하게 대답했다. 그러자 고죽의 얼굴에 일순 처량한 빛이 떠올더니 그때까지 꾀꾀하던 고개가 힘없이 떨구어지며 그의 몸이 스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러나 고죽은 그 순간도 명료한 의식으로 내면의 자기에게 중얼거리고 있었다. 결국 보이지 않았다. 나 역시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그걸 보고자 소망했지만, 어쩌면 그 소망은 처음부터 이룰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실은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지.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 일을 미루어 온 것인지도 모르지…….

그렇다면 고죽이 그의 일생에 걸친 작품에서 단 한 번이라도 보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였을까. 그것은 바로 그 새벽의 꿈에서와 같은 금시조였다. 원래 그 새가 스승 석담으로부터 날아올 때는 굳센 힘이나 투철한 기세 같은 동양적 이념미의 상징으로서였다. 그러나 고죽이, 끝내 추사에 의해 집성되고 그 학통을 이은 스승 석담에게서 마지막 불꽃을 태운 동양의 전통적 서화론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그 새 또한 변용되었다. 고죽의 독자적인 미적 성취 또는 예술적 완성을 상징하는 관념의 새가 되어 버린 것이었다.

< 중략 >

“이걸 싸서 밖으로 가지고 나가거라. 장독대 옆 화단이다.”

“?…….”

좁게 스승의 말을 되묻지 않는 초헌도 그때만은 좀 이상한 모양이었다.

“나는 저것들로 일평생 나를 속이고 세상 사람들을 속여 왔

다. 스스로 값진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당연한 듯 세상 사람들의 감탄과 존경을 받아들었다.”

“무슨 말씀을…….”

“물론 그와 같은 삶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아니다.”

“…….”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는 그것들에서 솟아오르는 금시조를 보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것으로 내 삶이 온전한 것으로 채워질 줄 알았다. 그러나 지금은 설령 내가 그 새를 보았다 한들 과연 그러할지 의문이다.”

“…….”

“자. 그럼 이제 시키는 대로 해라. 이것들을 남겨 두면 뒷사람까지도 속이게 된다.”

그러자 초헌은 말없이 서화 꾸러미를 안고 문을 나섰다. 스승의 참 뜻을 알아들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더는 영을 거역할 수 없기 때문인지도 알 수 없지만,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그런 초헌을 말리려 나서지 않았다. 언제부터인가 고죽을 감돌고 있는 이상한 위엄과 기품에 압도된 탓이었다.

“문을 닫지 마라.”

초헌이 나가고 누군가 문을 닫으려 하자 고죽이 말했다. 그리고 마당계로 걸어가고 있는 초헌을 향해 임종을 앞둔 병자답지 않게 높고 뚜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거기다 모두 내려 놓아라.”

방안에서 한눈에 들어오는 장독대 곁 화단이었다. 몇 포기 시들어가는 풀꽃 옆에 초헌이 서화 꾸러미를 내려 놓자, 고죽이 다시 소리 높여 명령했다.

㉠“불을 질러라.”

그제서야 방 안이 술렁거렸다. 일부는 고죽을 달래고 일부는 달려나와 초헌을 붙들었다. 모두가 쓸데없는 소란이었다. 자기를 달래는 사람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고죽이 돌연 벽력 같은 호통을 쳤다.

“어서 불을 붙이지 못할까!”

그런데 알 수 없는 것은 초헌이었다. 그 역시 까닭 모르게 노한 얼굴이 되어 잠깐 고죽을 노려보더니, 말리려는 사람을 거칠게 제쳐 버리고 불을 질렀다. 뒷날 고죽을 사이비(似而非)였다고까지 극언한 것으로 보아, 그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석담 선생적인 기질이 고죽의 그 철저한 자기 부정(自己否定)과 또는 지나친 자기 비하(自己卑下)에 반발한 것이리라. 마를 대로 마른 종이와 형질인 데다가 개중에는 기름까지 먹인 것도 있어 서화더미는 이내 맹렬한 불꽃으로 타올랐다. 신음 같은 탄식과 숨죽인 호느낌과 나지막한 비명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어떤 사람에게는 고죽 일생의 예술이 타고 있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처절한 진실이 떠오르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고죽의 삶 자체가 타는 듯도 보였다. 드물게는 불타는 서화더미가 그대로 그만한 고액권 더미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었다. 반세기 가깝게 명성을 누려 온 노대가, 두 대통령이 사람을 보내 그의 서화를 얻어가고, 국전 심사위원도 한 마디로 거부한 고죽의 진적(眞蹟)들이 한꺼번에 타 없어지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때 고죽은 보았다. 그 불길 속에서 홀연히 솟아오르는 한 마리의 거대한 금시조를. 찬란한 금빛 날개와 그 험한 비상.

— 고죽이 숨진 것은 그날 밤 8시경이었다. 향년 72세.

- 이문열, 금시조(金翅鳥) -

15. 위 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석담과 고죽은 예술에 대한 관점이 달랐다.
- ② 고죽은 예술관의 차이로 스승의 곁을 떠났다.
- ③ 초현은 견해의 차이에도 스승의 뜻을 따랐다.
- ④ 고죽의 서화는 고가(高價)로 판매되기도 하였다.
- ⑤ 고죽은 사람들로부터 예술적인 명성을 인정받았다.

16. [A]에 드러난 ‘고죽’의 심리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아아, 어이하리. 내 홀로 / 다만 내 홀로 지닐 즐거운 / 무상한 열반을 / 나는 꿈꾸었노라. / 그러나 나도 모르는 어지러운 티끌이 / 네 맘의 맑은 거울을 흐리노라. / 몸은 설워라. / 허물 많은 사바의 몸이여!
- ②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 허공 중(虛空中)에 헤어진 이름이여! / 불러도 주인(主人) 없는 이름이여! /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 심중(心中)에 남아 있는 말 한마디는 /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 ③ 깨진 그릇은 / 칼날이 된다. / 절제(節制)와 균형(均衡)의 중심에서 / 빗나간 힘, / 부서진 원은 모를 세우고 / 이성(理性)의 차가운 / 눈을 뜨게 한다. / 맹목(盲目)의 사랑을 노리는 / 사금파리여, / 지금 나는 맨발이다. / 베어지기를 기다리는 / 살이다.
- ④ 지는 저녁해를 바라보며 / 오늘도 그대를 사랑하였습니다. / 날저문 하늘에 별들은 보이지 않고 / 잠든 세상 밖으로 새벽 달 빈 길에 뜨면 / 사랑과 어둠의 바닷가에 나가 / 저무는 섬 하나 떠올리며 울었습니다.
- ⑤ 눈은 살아 있다. /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靈魂)과 육체(肉體)를 위하여 /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 있다. / 기침을 하자. /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 눈을 바라보며 /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라도 / 마음껏 뱉자.

17. ㉠의 근본적인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현실 세계를 예술 작품에 담아내지 못해서
- ② 옛 법체(法體)의 엄격함을 이어가지 못해서
- ③ 만족스러운 예술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해서
- ④ 자기 작품에 대한 명성이 유지되지 못해서
- ⑤ 자신의 작품과 같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18. <보기>의 관점에서 ‘고죽’을 비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보 기> —

‘시는 시인의 입을 떠나는 순간 시인의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듯이 예술 작품을 생산하는 사람은 작가이지만, 완성하는 것은 독자이다.

- ① 예술은 직관적 깨달음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가?
- ② 예술은 반드시 사회적 효용성을 가져야만 하는가?
- ③ 작가가 자기 작품의 가치를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 ④ 전통적인 방식을 벗어나 완성한 작품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 ⑤ 자신을 가르친 스승을 부정해야만 대가(大家)가 될 수 있는 것인가?

19. 차평(自評)에 해당하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글씨에 힘과 기교가 느껴지지 않는구나.
- ② 난초의 모습을 실감나게 그려내지 못했구나.
- ③ 그림과 글씨가 서로 균형이 잡히지 않았구나.
- ④ 모양은 흉내냈으나 정신을 담아내지 못했구나.
- ⑤ 사물을 그려냈으나 생동감이 나타나지 않는구나.

[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124. 뚝막 안

자리에 누운 송 영감. 나직히 신음한다. 처가 와서 약그릇을 놓는다.

옥 수: 약 잡수셔야죠……

송 영감: (눈을 뜨며) 음?!

옥수 일어나려는 송 영감을 부축하며 약그릇을 대 준다. 약을 마시는 송 영감.

송 영감: (걱정스럽게) 가만 어떻게 됐지?

옥 수: ㉠ 저녁때 독을 끌어내야죠……

송 영감: 음!

그의 시선은 구석에 놓인 백자기에 가 있다. 햇볕을 받아 더욱 고담한 백자기의 형체. - DIS* -

125. 가마 앞(황혼)

마당에 놓인 증웅, 통웅, 반응 등 갖가지 독들. 그런데 그 형태가 모두 고르지 않다. 비틀어진 독, 밑이 내려앉은 독, 거미줄처럼 금이 간 독들.

웁손이, 석현이 걱정스럽게 본다. 그러자 송 영감이 비실거리며 달려온다. 독을 하나하나 살핀다.

송 영감: (혼잣말처럼) 이럴 수가……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는데…… 이게 내가 만든 독이야! (절망) 아냐! 이진 독이 아냐! (계속 보며) 이것두! 이것두…… (비통하게) 이진 흙덩이다! 가마 앞에 달려가 망치를 든다.

웁손이: ㉡ 아니 여보게! 무슨 짓인가!

송 영감: 비켓! (뿌리친다)

나가떨어지는 웁손이

석 현: ㉢ (잡으며) 안됩니다! 성한 것두 있어요!

송 영감: 닥쳐! 이진 부정을 탔어! 모두 쳐부셔야 했!

밀어붙이며 달려가 미친 사람처럼 ㉣ 독을 박살 내기 시작한다.

㉤* 뚜왕! 뚜왕!

박살 나는 독들. 마치 자기 심장이 박살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옥수.

웁손이: (비통 혼잣말같이) 자네 환장했구먼!

석현이 매섭게 보다가 행하니 간다. 옥수 몹시 불안하게 그를 바라본다.

㉥* 뚜왕! 뚜왕!

송 영감 그만 숨이 턱에 닿는다. 풀썩 주저앉고 만다. 목구멍에서 차츰 오열이 새어 나온다.

㉦* 뚜왕! 뚜왕! 뚜왕!

옥수 귀엔 언제까지나 확대되어 가는 박살 나는 독 소리. 송 영감 조각난 독을 쓸어안고 오열해 운다. 석양에 물든 하늘.

- DIS -

- 황순원 원작, 여수중 각색, 「독 짓는 늙은이」 -

* DIS: 화면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그 위로 다음 화면이 나타남.

* ㉤: 효과음.

(나)

차차 송 영감의 숨씨에는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 더구나 조마구와 부채마치*로 두드려 올릴 때, 피땀 눈앞에 아내와 조수의 환영이 떠오르면 짓던 독을 때리는지 아내와 조수를 때리는지 분간 못 하는 새, 독이 그만 얇게 못나게 지어지곤 했다. 그리고 전*을 잡는 손이 떨려, 가뜩이나 제일 힘든 마무리의 전이 잘 잡히지를 않았다. 열 때문도 있었다. 송 영감은 ㉡ 쓰러지듯이 짓던 독 옆에 눕고 말았다.

송 영감이 정신이 들었을 때는 저녁때가 기울어서였다. 웁손이도 흠 몇 덩이를 이겨 놓고 가고 없었다. 언제부터인가 바깥 저녁 그늘 속에 애가 ㉢ 남쪽 장길을 향해 쫓그리고 앉아 있었다. 어머니를 기다리는 거리라. 언제나처럼 장 보러 간 어머니가 언제나처럼 저녁때면 조수에게 장감을 지워 가지고 돌아올 줄로만 아직 아는가 보다.

밖을 내다보던 송 영감은 제힘만이 아닌 어떤 힘으로 벌떡 일어나 다시 ㉣ 독 짓기를 시작하는 것이었으나, 이번에는 겨우 한 개를 짓고는 다시 쓰러지듯이 눕고 말았다.

다음에 송 영감이 정신이 든 것은 아주 어두운 속에서 애가 흔들려 깨워져서였다. 울먹이던 애가 깨나는 아버지를 보고 그제야 안심된 듯이 저쪽에서 밥그릇을 가져다 아버지 앞에 놓았다. 웬 거냐고 하니 애가, 앵두나뭇집 할머니가 주더라고 한다. 송 영감은 확 분노가 치밀어, 누가 거랑질해 올라더냐고 밥그릇을 밀쳐 놓자 애가 훌쩍훌쩍

[A] 울기 시작했다. 송 영감은 아침에 어제의 저녁밥 남은 것을 조금 뜨는 것처럼 하고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는, 애도 아직 저녁을 못 먹었을지 모른다고 밥그릇을 도로 끌어다 한 술 입에 떠넣으며 이번에는 애보고, 맛있으니 너도 먹으라는 것이었으나, 자신은 입맛을 잃은 탓만도 아닌 무엇이 밥 넘기려는 목을 치밀어 올라오곤 해, 좀처럼 밥을 넘길 수가 없었다.

다음날 아침에는 송 영감이 죽인지 밥인지 모를 것을 끓였다. 여전히 입맛은 없었으나 어제 저녁처럼 목이 메어 오르는 것은 없었다.

오늘은 또 지어 올리는 독을 말리느라고 처음에는 독 밖에 피워 놓았다가 독이 한 반쯤 지어지면 독 안에 매달아 놓은 숯불의 숯내까지가 머리를 더 무겁게 했다. 사십 년래 없이 숯내를 다 먹는 듯했다.

송 영감은 어제보다 더 쓰러져 넘어지는 도수가 많았다. 흠이기던 웁손이가 이래서는 도무지 한 가마 채우지 못하리라고 송 영감에게 내년엔 마저 지어 첫 가마에 넣도록 하는 게 어떨냐고 몇 번이고 권해 보았으나 송 영감은 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 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 하면서도 독 짓기를 그만두려고 하지는 않았다.

- 황순원, 「독 짓는 늙은이」 -

* 조마구와 부채마치: 용기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 한 쌍의 도구.

* 전: 용기 등 물건의 위쪽 가장자리가 조금 넓적하게 된 부분.

21. <보기>의 관점에서 ㉠, ㉢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장인(匠人)’을 소재로 한 문학 작품에서 ‘장인’은 실용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술자의 모습과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예술가의 모습을 모두 지닌 존재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오랜 시간의 숙련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을 극복하며 경지에 이른 장인은 자신이 제작하는 작품을 통해 예술가적 집념과 열의를 보여 준다.

- ① ‘아냐! 이진 독이 아냐!’는 ㉠의 원인이 되는 장인의 엄격한 미적 기준을 드러내며, ‘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 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는 ㉢를 향한 장인의 예술가적 집념을 보여 준다.
- ② ‘흙덩이다!’는 장인의 가치 판단으로 ㉠의 동기를 드러내고, ‘흙 몇 덩이’는 ㉢에서 장인이 자신의 작품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소재를 지칭한다.
- ③ ‘매섭게 보다가 웅하니 간다’는 ㉠로 인해 벌어지는 장인과 주변 인물의 갈등을 보여 주고, ‘조수의 환영’은 ㉢의 과정에서 장인의 고뇌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 요인을 드러낸다.
- ④ ‘풀썩 주저앉고 만다’는 ㉠를 계기로 예술가의 집념이 좌절됨을, ‘사십 년래 없이 솟대를 다 먹는 듯했다’는 ㉢의 과정에서 부딪힌 장인으로서의 능력의 한계를 드러낸다.
- ⑤ ㉠의 행동 이후 ‘조각난 독을 쓸어안고 오열하는’ 것은 미적 가치 추구의 어려움을, ㉢를 ‘그만두려고 하지는 않’는 것은 미적 가치의 실현에 대한 열의를 드러낸다.

22.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옥수’의 걱정이 ‘송 영감’보다는 독에 가 있음을 알려 준다.
- ② ㉡: ‘웁손이’가 ‘송 영감’의 행동을 오만함에서 비롯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려 준다.
- ③ ㉢: ‘석현’이 독의 완성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송 영감’의 기준과 다름을 보여 준다.
- ④ ㉣: ‘송 영감’이 독을 제대로 구워 내지 못하는 가마에 불만을 품고 있음을 드러낸다.
- ⑤ ㉤: ‘애’가 언제나처럼 ‘웁손이’가 아버지를 모시고 올 것이라 믿고 있음을 나타낸다.

23. [A]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의 흐름을 단계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부각하고 있다.
- ② 인물 간의 대화에 서술자가 개입함으로써,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 ③ 새로운 인물이 다른 인물의 발화를 통해 등장함으로써, 인물 간의 대립 구도가 전환되고 있다.
- ④ 서술자가 인물의 분노를 직접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상황에 대한 인물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인물들의 심리 상태를 공간적 거리와 결부하여 서술함으로써, 인물 간의 심리적 거리감을 보여 주고 있다.

2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시나리오 『독 짓는 늙은이』는 원작과 달리, 인물의 관점에서 사건을 재구성하고 인물들의 행동과 대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냄으로써 개연성을 높였다. 또한 영화 기법 용어들의 사용과 지시문을 통한 시각적 묘사는 현실감을 높이고 현장성을 강화하고 있다.

- ① (가)에서는 ‘백자기의 형체’가 ‘햇볕을 받아 더욱 고담’하다고 함으로써 이를 바라보는 행위에 개연성을 더하고 있다.
- ② (가)에서는 ‘나가떨어지는’과 같은 사실적인 행위를 통해 갈등 상황을 현실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 ③ (가)에서는 ‘뚜왕 뚜왕 뚜왕’의 효과음을 이용하여 현장성을 강조하고 인물의 내면적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나)의 ‘못나게 지어지곤 했다’와 같이 진술되는 내용이 (가)에서는 ‘비틀어진 독’과 같은 구체적인 사물에 대한 시각적 묘사로 현실감을 높이고 있다.
- ⑤ (나)의 ‘제힘만이 아닌 어떤 힘으로 벌떡 일어나’와 (가)의 ‘마치 자기 심장이 박살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은 모두 시각적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27~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만약에 나라는 사람을 유심히 들여다본다고 하자
그러면 나는 내가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먼 산정에 서 있는 마음으로 나의 자식과 나의 아내와
그 주위에 놓인 잡스러운 물건들을 본다

그리고

나는 이미 정해진 물체만을 보기로 결심하고 있는데
만약에 또 어느 나의 친구가 와서 나의 꿈을 깨워 주고
나의 그릇됨을 꾸짖어 주어도 좋다

함부로 흘리는 피가 싫어서
이다지 남아빠진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리라
먼지 낀 잡초 우에
잠자는 구름이여
고생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철 늦은 거미같이 존재 없이 살기도 어려운 일

방 두 칸과 마루 한 칸과 말쑥한 부엌과 애처로운 처를
거느리고
외양만이라도 남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이 이다지도 씁스
러울 수가 있을까

[A]

시를 배반하고 사는 마음이며
자기의 나체를 더듬어 보고 살펴볼 수 없는 시인처럼 비참한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거리에 나와서 집을 보고 집에 앉아서 거리를 그리던 어리석
음도 이제는 모두 사라졌나 보다
날아간 제비와 같이

날아간 제비와 같이 자국도 꿈도 없이
어디로인지 알 수 없으나
어디로이든 가야 할 반역의 정신

나는 지금 산정에 있다 —
시를 반역한 죄로
이 매마른 산정에서 오랫동안 꿈도 없이 바라보아야 할 구름
그리고 그 구름의 파수병인 나.

- 김수영, 「구름의 파수병」 -

(나)

함이정: 처녀 때 난 생각했었지. 영리하고 듬직한 아들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기쁜 일 슬픈 일 뭐든지 의논할 수
있는 내 아들…… 그러다가 너를 느꼈고…… 네 느낌과 이야
기하길 즐겼다. 사람들은 나 혼자 중얼중얼거린다고 괴상하게
보더라. 사실은 너와 나, 둘이서 함께 말하고 있었는데…….

조승인: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해 주세요, 어머니.

함이정: 처음부터……?

조승인: 네. 제가 태어나기 전, 어머니의 처녀 시절부터요. 그
때 두 분 아버지의 관계는 어땠죠?

함이정: 그땐 좋았다. 두 분 다 우리 집에서 가족처럼 살면서,
우리 아버님한테 불상 제작을 배우는 제자였지. 그런데 어느
날, 스승인 아버님이 불상 제작장에 가 보니까 두 제자들이
자릴 비우고 없었어. 몹시 화가 난 아버님은 집 안으로 들어와
제자들의 이름을 부르셨지. “동연아! 서연아!” 아버님 목소리
가 어찌나 찌렁찌렁 울렸는지, 천 리 밖까지 들릴 것 같더라.

(조명, 밝게 변화한다. ㉠ 한가운데 펼쳐 있던 천막이 접혀지면서 무대
천장 위로 올라간다. 함묘진의 집. 함묘진이 성난 모습으로 등장한다.
함이정과 조승인은 서연의 관, 쏫대, 향로 등을 무대 밖으로 갖고
나간다.)

함묘진: 동연아! 서연아! 어디 있느냐?

함이정: (무대 밖에서) 여긴 없어요, 아버지.

함묘진: 여기 집 안에도 없다……?

함이정: (무대 밖에서) 내가 나가서 찾아올까요?

함묘진: 넌 가만 있거라. (다시 외쳐 부른다.) 동연아! 서연아!

(㉢ 상복을 벗고 밝은 색 옷을 입은 함이정과 조승인, 무대 안으로
나온다.)

조승인: 할아버지 목청은 왜 저렇게 커요?

함이정: 귀머거리도 들을 정도야. 그치?

함묘진: 동연아! 서연아!

(동연과 서연, 등장한다. 그들은 당황한 모습으로 함묘진 앞에 선다.)

동연, 서연: 부르셨습니까?

함묘진: 작업장엔 너희들이 없더구나!

동연: 죄송합니다. 잠깐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함묘진: 밖에는 왜?

동연: 말다툼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달라서요.

함묘진: 말다툼?

동연: 네.

함묘진: 서연아, 네가 다툼 이유를 말해 봐라.

서연: 송구스럽습니다…….

함묘진: 너흰 생각도 행동도 똑같았다. 그런 너희들이 말다툼을
하다니, 도대체 다르다면 뭐가 달랐더냐?

서연: 동연은 부처의 모습을 만들면, 그 모습 속에 부처의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함묘진: 그런데, 너는?

서연: 그런데 저는…… 부처의 모습을 만들어도, 부처의 마음이
그 안에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했습니다.

동연: 사부님, 서연을 꾸짖어 주십시오. 서연은 쓸데없는 주장
으로 저를 괴롭힙니다.

(중략)

(서연과 함이정, 일어선다. 돌부처를 만들면서 길을 따라간다. 물 흐르는
소리가 점점 가깝게 들려온다. ㉢ 조명, 개울물의 흐름을 나타낸다.)

함이정: 개울물이에요, 서연 오빠. 여기서 길은 끊겼어요.
서연: (개울가로 다가가서 두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며) 너도 마시렴. 목마를 텐데…….

함이정: (서연 곁으로 가서 개울물을 바라본다.) 물 위에
 비쳐 보여요, 우리 얼굴이…… 얼굴 뒤편 구름이…… 구름 [B]
 뒤편 하늘이……. (물을 떠서 마신다.) 물이 맑고 시원해요.」

(서연, 장난스럽게 개울물을 마치 눈덩이처럼 뭉치는 동작을 한다.)

함이정: 오빠…… 뭘 하는 거죠?

서연: 물부처를 만든다.

함이정: 물부처요?

서연: 돌로도 부처님을 만드는데, 물이라고 안 될 건 없지.

(서연, 흐르는 물 속으로 들어가 물로 만든 부처를 세워 놓는다.
 부처의 느낌은 남고 형태는 사라진다.)

함이정: 오빠, 이쪽으로 나와요.

서연: (개울물을 건너가며) 난 이제 저쪽으로 간다.

함이정: 서연 오빠…….

서연: 넌 나중에 건너와.

함이정: (손을 흔든다.) 그래요, 오빠…… 먼저 가요. 나는 나중
 에…….

(서연과 함이정, 잠시 개울물 양쪽에서 서로를 바라본다. ㉠ 조송인이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두드리며 작곡 중이다. 개울물 건너쪽, 눈부시도록 밝아진다. 때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함묘진이 다급하게 휠체어 바퀴를 굴리면서 들어온다. 그는 피아노 옆을 지나 개울물을 건너간다./ 코러스(돌부처)들, 개울물을 건너가는 서연을 배웅하듯이, 따라가듯이, 마중하듯이, 서연과 함께 어우러져 춤을 추며 간다. 개울 저쪽, 눈부시도록 빛이 밝다. ㉡ 함묘진이 다급하게 휠체어 바퀴를 굴리면서 들어온다.)

조송인: 할아버지, 어딜 그렇게 급히 가세요?

함묘진: 극락문이 열렸어! 극락문이 열렸어!

(함묘진, 휠체어에서 일어난다. 그는 서연의 뒤를 따라 빛 안으로 들어 간다. 무대 조명, 변화한다. 동연, 등장한다. 그는 조송인에게 다가와서 전보 용지를 내놓는다.)

- 이강백, 『느낌, 극락같은』 -

27.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는 자신과 가족뿐만 아니라 '주위'의 '물건들'까지 살펴 보면서 자기의 생활을 성찰하고 있다.
- ② 화자는 '나의 친구'가 방문한 뒤에야 비로소 자신의 삶이 '그릇됨'을 자각하고 있다.
- ③ 화자는 '고생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에서 '존재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
- ④ 화자는 자신을 '자기의 나체를 더듬어 보고 살펴볼 수 없는' 비참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 ⑤ 화자는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죄'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구름의 파수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28. <보기>를 고려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구름의 파수병』에는 시와 생활 사이에서 갈등하는 화자의 진솔한 자기 성찰이 드러난다. 화자는 ㉠ 생활에 몰두하려는 자아와 이러한 자아를 극복하고자 하면서 ㉡ 시를 새롭게 지향하려는 자아를 등장시킨다. ㉢은 시선을 고정하려는 태도나 움츠러들어 있는 이미지로 나타나는데, ㉣에서 벗어나 ㉤으로 변모하고자 하는 화자는 '날아간 제비'를 떠올리다가 '반역의 정신'을 추구하는 데 이른다.

- ① '내가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다'에서는 화자의 진솔한 성찰의 어조가 느껴지는군.
- ② '나는 이미 정해진 ~ 결심하고'는 ㉢과 ㉤의 갈등을 해소한 화자의 심정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③ 화자가 자신을 '어디로이든 가야 할' 존재로 여기는 것은 ㉢에서 ㉤으로 나아가려는 의지에서 비롯한 것이겠군.
- ④ 화자가 '메마른 산정'에서 지향하는 '반역의 정신'은 ㉤이 추구하는 것이겠군.
- ⑤ '구름의 파수병'은 두 자아의 갈등 속에서 시를 새롭게 지향하려는 화자의 의식이 반영된 이미지이겠군.

29.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대상을 나열함으로써 화자의 정서가 촉발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② [B]는 의미가 확장되는 대상들의 연쇄를 통해 인물의 혼란스러운 내면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A]의 대상들은 화자의 만족을, [B]의 대상들은 인물의 불만을 드러내는 기능을 하고 있다.
- ④ [A]에서는 화자와 대상들 간의 연속성이 드러나고, [B]에서는 인물 간의 단절감이 암시된다.
- ⑤ [A]와 [B]는 대상의 속성을 반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화자나 인물의 심리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30.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는 희곡의 특성을 고려할 때, ㉠~㉣를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무대 장치의 이동으로 극중 공간을 좌우로 분리시킨다.
- ② ㉡: 등장인물들의 의상 교체로 장면 전환을 나타낸다.
- ③ ㉢: 조명 변화를 통해 등장인물들의 갈등 해소를 보여 준다.
- ④ ㉤: 등장인물이 무대 밖에서 피아노로 음향 효과를 낸다.
- ⑤ ㉥: 소품을 이용해서 극적 긴장감을 완회시킨다.

31.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의 공간이 화자의 내면이 투영된 상징적 공간이라면, (나)의 공간은 제한된 시간 내에 인생을 압축해서 보여 줘야 하는 극의 특성상 극중 인물의 현실이 상징화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가)와 (나)에서, 공간들은 때로 대비되면서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 ① (가)의 ‘집’과 ‘거리’는 삶의 방향을 정하지 못했던 화자에게 대비적으로 인식되었던 공간이군.
- ② (가)에서 생활공간과 대비되는 ‘먼 산정’은 화자가 자신의 현실을 응시하기 위해 상징한 공간이군.
- ③ (나)에서 ‘작업장’은 불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동연과 서연의 예술관이 부딪치는 공간이군.
- ④ (나)의 ‘돌부처’를 만들며 가는 ‘길’은 ‘하늘’과 대비되는 곳으로 서연의 예술관이 조승인에게 전수되는 공간이군.
- ⑤ (나)의 개울물 ‘저쪽’은 개울물 ‘이쪽’과 대비되는 곳으로 예술의 본질을 추구하던 서연이 도달하게 되는 공간이군.

32. (나)의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런데 어느 날, 스승인 아버님이 ~ 두 제자들이 자릴 비우고 없었어.”라는 대사에서 함이정은 극 중의 사건을 현재에서 과거로 전환시키는 기능을 한다.
- ② “동연아! 서연아! 어디 있느냐?”라는 대사에서 함효진은 ‘어머니의 처녀 시절’ 이야기 속의 인물들을 무대로 등장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 ③ “할아버지 목청은 왜 저렇게 커요?”라는 대사에서 조승인은 등장인물의 행동을 평하면서 다른 인물들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기능을 한다.
- ④ “서연은 쓸데없는 주장으로 저를 괴롭힙니다.”라는 대사에서 알 수 있듯 동연은 ‘어머니의 처녀 시절’ 이야기 속 갈등의 한 축으로서 기능한다.
- ⑤ “돌로도 부처님을 ~ 안 될 건 없지.”라는 대사에서 알 수 있듯 서연은 작품의 주제 의식을 전달하는 인물 중 하나로 기능한다.

◆ 02년 6월 고1 36~40번

[36~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S#84. 소릿재 폐가 방 안

(송화, 문 앞에 앉아 있고, 유봉 그 앞에 앉아 있다)

유 봉 : 이제 제법 니 한을 소리에 실을 수 있게 되었구나.

송 화 : / 유 봉 : 송화야.

송 화 : 예. 아버지.

유 봉 : 내가 니 눈을 그렇게 만들었다.

송 화 : ㉠ / 유 봉 : 알고 있었냐?

(송화, 끄덕인다)

유 봉 : 그럼 용서도 했냐? / 송 화 :

유 봉 : 니가 나를 원수로 알았다면 니 소리에 원한이 사무쳤을텐디, 니 소리 어디에도 그런 흔적은 없더구나. 이제부터는 니 속에 응어리진 한에 과문하지 말고 그 한을 넘어서는 소리를 허라.

(송화의 얼굴)

유 봉 : (소리) 동편제는 무겁고 맺음새가 분명하다면, 서편제는 애절하고 정한이 많다고들 하지. 하지만 한을 넘어서게 되면, 동편제도 서편제도 없고 득음의 경지만 있을 뿐이다.

<중략>

S#91. 엮전 주막 방 안

(천가가 문을 열어 주면 송화가 방으로 들어가 앉는다)

(동호, 송화를 뚫어저러 바라본다. 천가, 문을 닫는다)

(송화의 B.S.*)

㉡ 동 호 : 소리를 쫓아 남도 천지 안 돌아본 데가 없는 위인이요. 소리만 있어 주면 이대로 앉아 밤이라도 새우겠소.

송 화 : 들을 만한 데도 없이 천하기만 한 소리요.

동 호 : (소리) 소문을 듣고 찾아온 터이니 사양치 말고 좀 들려 주시오.

(송화, 자세를 고쳐 앉는다)

동 호 : (북을 앞으로 잡아끌며) 북을 잡아본 지 오래 돼서..... 장단이나 맞을런지 모르겠소.

(동호, 북을 둥둥 친다)

송 화 : 그때의 심청이는 부친 눈을 띄울라고 / 남경 장사 선인들께 삼백 석에 몸이 팔려 / 만경창과를 떠날 적에 / 북을 두리둥두리둥 둥둥 두리둥 둥둥 둥둥

(북치는 동호의 모습)

송 화 : (소리) 물결은 위리령위리령 툭 처 뱃전을 탕탕 와르르르르

송 화 : 심청이 거동뵈라 바람맞은 사람처럼 이리 비틀 저리 비틀 / 뱃전으로 나가더니 다시 한 번을 생각한다 / 내가 이리 진퇴키는 부친 효성 부족함이라. / 치마폭 무릅쓰고 두 눈을 딱 감고 / 뱃머리로 우르르르 손 한 번 헤치드니 / 기러기 낙수격으로 뿔다 물에가 — (소리) 풍

동 호 : (북을 치며) 어이

송 화 : 행화는 풍랑을 쫓고

(동호임을 알아채고 동호쪽을 보는 송화)

(두 사람의 부감*)

송 화 : 명월은 해운에 잠겼구나.

(㉢시선을 거두는 송화)

<중략>

S#95. 엮전 길

(동호,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다)

천 가 : (소리) 저 사람이 자네가 늘 기다리던 동생인가?

송 화 : (소리) 예. 제 소리가 저 사람의 북장단을 만났을 때 대번에 동생인지 알아챘지요. 옛날 제 아비 숨씨 그대로였어요.

S#96. 엮전 주막 안

천 가 : 어쩐지 심상치 않더라니. 현디 그렇게도 기다리던 사람끼리 왜 서로 모른척 하고 헤어졌단 말인가?

송 화 : 한을 다치고 싶지 않아서였지요.

천 가 : 무슨 한이 그렇게도 깊게 맺혔간디 풀지도 못하고 허망하게 헤어졌단 말이여?

송 화 : 우리는 간밤에 한을 풀어 냈어요.

천 가 : 어떻게?

송 화 : 제 소리하고 동생의 북으로요.

천 가 : 어쩐지 임자 소리가 예전하고 썩 다르다 했더니만은..... (버스 소리 들려온다)

<중략>

S#98 염전 주막 안

(버스 떠나는 소리 들린다)

송 화 : 제가 여기 온 지 얼마나 되었지요?

천 가 : 한 삼 년 되었제.

(송화 B.S)

송 화 : 제 팔자를 생각해 보면 당치도 않게 편한 세월이
너무 길었나 봐요. 이제 그만 몸을 옮겨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천 가 나도 그럴 것이라고 짐작을 했네만..... 다시 돌아
비로 돌아가는구만. 정해진 곳은 있는가?

(송화, 고개를 젓는다)

천 가 : (소리) 정해지거든 알려주소. 내 짐을 부쳐줍세.

S#99 갈대밭

(여자 아이의 손에 이끌려 길을 가는 송화)

(멀어져 가는 송화와 여자 아이)

(타이틀 오른다)

- 이청준 원작/김명곤 각색, 서편제 -

*B.S.(bust shot) : 카메라 용어. 머리끝에서 가슴까지 잡아서 촬영하는 기법.

*부감 :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본 모습.

36. 윗글을 영화화할 때, 감독이 각 배역을 맡은 연기자들에게 주문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S#84의 유봉은 대견하고 호뭇한 표정을 짓도록 합시다.
- ② S#91의 송화는 한을 초월한 경지가 느껴지도록 연기해 주십시오.
- ③ S#91의 동호는 북받치는 감정을 억제하는 모습을 잘 살려 내도록 합시다.
- ④ S#96의 송화는 동생과 헤어지고 나서 허탈해하는 표정이 나타나도록 합시다.
- ⑤ S#98의 천가는 착하고 인정 많으며 남의 처지를 이해할 줄 아는 인물로 표현합시다.

37. ㉠처럼 <보기>의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할 때,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축제에는 사회자가 필요없지.
- ② 역시 너는 사람 보는 눈이 있구나.
- ③ 싫어! 나는 그런 고생을 하고 싶지 않아.
- ④ 나는 능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해낼 수 없을 거야.
- ⑤ 축제의 사회자는 학생회장이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

38. ㉠에 담긴 인물의 태도를 바르게 추리한 것은?

- ① 아버지를 몹시 원망하고 있을 것이다.
- ② 아버지의 고백을 믿고 싶지 않을 것이다.
- ③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당혹스러울 것이다.
- ④ 아버지가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할 것이다.
- ⑤ 아버지의 의도를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39. ㉡에 숨겨져 있는 ‘송화’의 생각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동생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게 해야겠다.
- ② 동생인 줄은 알지만 내색하지 말아야겠다.
- ③ 내가 장님인 걸 눈치채지 못하게 행동해야겠다.
- ④ 동생이 여길 어떻게 왔는지 자세히 물어 봐야겠다.
- ⑤ 오랜만에 만난 동생에게 눈물을 보이지 말아야겠다.

40. <보기>는 윗글에 대한 감상을 시로 표현한 것이다. S#98과 S#99에 해당되는 시구는?

<보기>

북채를 잡아라 오래비여.

송화가루 하염없이 내 뿔가를 스치는

㉠남도 황토길 터벅터벅 걸어
소리제에 올랐다.

㉡산마루마다 걸린 붉은 노을은
누구의 노래더냐 누구의 불타는 마음이더냐

㉢어서 북채를 잡아라

㉣눈뜨고는 차마 여기 이를 수 없어
오래비여, 나 눈을 감았다.

내 소리 이제 이 산천에 묻고

㉤또 다른 소리 찾아

이 몸 이 산천 저 산천 떠돌리라

어서 북채를 잡아라.

- 조태일, 서편제 -

- ① ㉠ ② ㉡ ③ ㉢ ④ ㉣ ⑤ ㉤

[34~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늦가을의 어느 날 저녁 무렵, 천 씨의 주막에 한 사내가 찾아온다. 사내는 주막집 눈 먼 여자에게 소리를 해달라고 한다.

소리가 마을로 들어서던 그 한여름이 지나가고 해가 훌쩍 뒤바뀌고 난 이듬해 이른 여름의 어느 날 밤, 소년의 어머니는 땀방울이 끼쳐 내려앉는 듯한 길고도 무서운 복통 끝에 흡사 핏속에서 쏘아내듯 작은 살덩이 계집아이 형상 하나를 낳아놓고는 그날 새벽으로 그만 영영 눈을 감아버린 것이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는 다음 날 아침에야 비로소 소리의 사내가 그 후줄근한 모습을 드러내며 소년의 집 사립문을 들어서던 것이었다.

“일이 그렇게 되고 보니 그 소리를 하던 남자, 그러니까 내겐 아마 의붓아버지가 되었을 뻔한 그 사내는 이제 더 이상 얼굴을 들고 살아가는 수가 없게 됐제. 그래서 끝내는 애 어미되는 사람의 무덤을 만든 뒤에 그 길로 곧 펄땀일 싸들고 마을을 떠나고 말았단네!”

사내는 이제 남의 얘기라도 하듯이 담담한 얼굴이 되어 이야기를 끝맺어 가고 있었다.

하지만 소년은 아직도 그때의 그 사내의 얼굴이 소리의 진짜 얼굴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소년에겐 여전히 그 뜨거운 햇덩이가 소리의 진짜 얼굴로 남아 있었다. 나이가 들어가도 마찬가지였다. 사정이 달라져버린 소리의 사내가 필덩이 같은 갓난애와 소년을 데리고 이 고을 저 고을로 소리를 하며 밥구걸을 다니고 있었을 때도, 소리의 진짜 얼굴은 언제나 그 뜨겁게 이글거리는 햇덩이 쪽이었다.

괴롭고 고통스런 얼굴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된 심판인지 사내는 그 고통스런 소리의 얼굴을 버리고는 살 수가 없었다. 머리 위에 햇덩이가 뜨겁게 불타고 있지 않으면 그의 육신과 영혼이 속절없이 맥을 놓고 늘어졌다. 그는 그의 햇덩이를 만나기 위해 끊임없이 소리를 찾아다니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런 식으로 이날 이때까지 반생을 지낸 속명의 태양이요, 소리의 얼굴이었다.

“하니까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말을 하지 않아도 대개 짐작이 가겠네마는, 어쨌거나 나는 그런저런 내력으로 이 나이 마흔이 넘어서도 그 누추한 어릴 적 기억을 버리지 못해 이런 청승맞은 소리 비렁뱅이질을 계속하고 다니는 꼴이라네. 소리를 들으면 어렸을 적에 그 발두렁가에 누워 보던 바다비늘이 아슬아슬 떠오르고 골짜기 숲으로부터 복더위를 씻어가던 한 줄기 바람결이 내 얼굴을 지나가고…… 아니 그보다도 나는 소리만 들으면 그 이마 위에서 무섭게 들끓고 있던 여름 햇덩이를 다시 보게 되곤 하니 말이네. 그런데 말이네, 그런데 난 오늘 밤 자네한테서 내 눈썹을 불태울 것 같은 그 뜨거운 햇덩이를 다시 보게 된 것일세. 자네처럼 뜨거운 내 햇덩이를 품은 소리를 만난 일이 없는 것 같단 말일세…… 이제 내가 이토록 자네 소리에 끌리는 까닭을 알겠는가…….”

사내는 이야기를 끝내고 나서도 마치 아직도 그 들끓는 태양별을 머리 위에 견디고 있는 듯이 얼굴을 심히 고통스럽게 찡그리고 있었다.

(중략)

“하지만 자네한테 오라비가 있었다 해도 어젯밤 손님이 그때의 오라비라고 장담을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보아하니 자네나 손님이나 양쪽 다 그런 일은 입에도 올리질 않았던 것 같은데 말이네.”

묵묵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주인 천 씨가 아직도 걱정스런 얼굴로 물었다. 하지만 여자는 아직도 전혀 목소리가 흐트러지는 기색이 없었다.

“오라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은 벌써 손님을 처음 대했을 때부터 들기 시작했소. 손님이 소리를 찾아다니게 된 내력을 말했을 때는 다시 의심할 여지도 없었고요. 하지만 정말 오라버니 소리가 목에까지 솟아오를 뻔한 것은 복채를 손님께 내어드리고 나서 제 소리가 오라비의 장단을 만났을 때였답니다. 오라비의 숨씨는 옛날의 제 아버 되는 노인의 숨씨 그 대로였소.”

“그렇다면 자네 오라비라는 사람도 그때 자넌 알고보고 있었을 게 아닌가.”

“알아보았겠지요. 절 알고 여기까지 길을 찾아오신 건지도 모르고요. 모르고 오셨더라도 그 양반 장단을 놀아 나가면서는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것이요.”

“그렇다면 글썄…… 자네를 알아보기도 오라비는 어쨌서 끝내 오라비라는 소리 한마디 못해 보고 그렇게 허망히 길을 떠나가고 말았단 말인가.”

“그것은 아마 오라비가 또 날 죽이고 싶었기 때문이었을 것이요.”

“오라비가 자넌 죽이고 싶어 하더니?”

사내의 두 눈이 다시 크게 벌어졌다.

“노인네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말씀하신 것이 또 한 가지 있었답니다. 당신은 늘 소리를 할 때 오라비 눈에 살기가 도는 것을 보았더라고요. 당신이 소리를 하면 오라비는 이상스럽게 눈빛이 더워지면서 당신을 해치고 싶어 못 견뎌 하더랍니다. 오라비가 싫은 것을 참아가면서도 의붓아버를 따라다닌 것은 그 불쌍한 노인네가 당신의 어머니를 죽인 거라 작심하고 어미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였을 거랍니다. 노인네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서 원수를 갚으라고 오라비 앞에 더욱 힘이 뻗치게 목청을 돋워대곤 하셨더라고요…… 하지만 오라비는 결국 원수를 갚기는커녕 당신 편에서 먼저 노인의 소리를 못 이기고 도망을 치고 말았다는 말씀이었지요. 그런데…… 어젯밤엔 저도 소리를 하면서 오라비한테서 그런 살기가 완연하게 느껴져 오더구만요. 오라비 그걸 무슨 햇덩이 같은 거라고 말씀하고 있었지만, 그게 바로 살기였을 게라요. 오라비가 그 햇덩이 때문에 이마가 뜨거울 때 당신은 살기가 일고 있었던 것이요.”

“자네는 그럼 오라비한테서 그런 살기를 느끼면서도 무슨 정성으로 밤새껏 그리 목청을 뽐냈던가? 오라비 살기가 부풀어 끝장이라도 나고 싶었던가 말이네.”

“…….”

“그리고 또 자네 오라비란 사람도 그런 살기가 돌았다면 어쨌서 끝내 자네를 해치지 못하고 말도 없이 문을 나갔겠는가 말이네.”

“그야 오라비는 옛날에도 노인을 해치진 못했지요. 노인을 해치고 싶어 했다 뿐, 소리 때문에 외려 당신 쪽에서 몸을 피해 달아난 위인이었다지 않습디까. 오라버니 제 소리에 살기가 일었을지 모르지만, 제 소리 때문에 또 당신 쪽에서 먼저 몸을 피해가신 것입네다.”

“그걸 자네 오라비도 알았을까. 그 오라비한테도 자네가 이미 오라비를 그토록 알고보고 있는 눈치를 말이네.”

“소리가 어우러져 나가면서 오라버니도 죽히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요.”

“…….”

틈을 주지 않고 물어대던 사내가 마침내 입을 다물었다.

- 이청준, 「소리의 빛」 -

3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한 인물의 내적 독백을 통해 인물 사이의 갈등을 전달하고 있다.
- ② 서로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병렬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 ③ 한 인물이 다른 인물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서 과거의 사연이 드러나고 있다.
- ④ 서술자가 중립적 위치에 서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인물들의 다른 기억을 대조하고 있다.
- ⑤ 서술자가 인물 간의 갈등을 다각적으로 조명하여 사건에 내포된 다양한 의미를 탐색하고 있다.

35. 윗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은?

- ① ‘천 씨’는 ‘여자’를 찾아온 ‘사내(오라비)’를 보고, 그가 ‘여자’의 오빠임을 알았다.
- ② ‘여자’와 ‘사내(오라비)’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서로 말하지 않고 헤어졌다.
- ③ ‘사내(오라비)’가 찾아온 날 밤, ‘여자’는 그의 장단에 맞추어 소리를 했다.
- ④ ‘여자’는 출생 직후 어머니 없이 아버지의 손에서 자랐다.
- ⑤ ‘천 씨’는 ‘여자’의 이야기를 이끌어내고 있다.

36.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이 작품에서 ‘사내’는 누이와 함께 ‘의붓아비(노인)’를 따라 다니다가 노인의 소리를 못 이기고 도망을 한다. 그러나 그는 운명적으로 소리를 찾아다니게 된다.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은 ‘예술(가)의 길’을 알레고리적으로 보여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술은 끊임없이 추구하는 과정만 존재하며, 그 길은 시련과 고통의 연속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작품에서 ‘소리’와 ‘햇덩이’는 이와 같은 예술가의 길과 관련이 있는 상징적 이미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 ① ‘사내’가 ‘여자’에게서 ‘뜨거운 햇덩이’를 보았다고 했음에도 다시 길을 떠났다는 것은, 예술의 길이 끝이 없는 과정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② ‘사내’가 ‘소리’로 상징되는 노인에게 ‘살기’를 품었으면서도 결국 해치지 못한 것은, 그가 예술의 길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사내’가 버리고 살 수 없는 ‘소리’가 ‘고통스런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예술의 길을 걷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시련과 고통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 ④ ‘사내’가 ‘여자’에게 보여 준 장단의 숨씨가 옛날의 노인의 숨씨 그대로였다는 것은, ‘사내’가 ‘햇덩이’로 상징되는 ‘소리’의 절대적 경지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⑤ ‘사내’가 노인의 ‘소리’를 못 이기고 도망을 쳤음에도 끊임없이 ‘소리의 진짜 얼굴’을 찾아다니는 것은, 그가 예술가의 길을 ‘숙명’으로 여기는 인식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13년 6월 고1 24~27번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신문 기자인 ‘나’는 어떤 줄광대에 관한 기사를 취재하기 위해 C읍으로 간다. 그곳에서 만난, 트럼펫을 불던 사내는 나에게 ‘허 노인’과 ‘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허 노인이 줄을 타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다. 천장 포장을 건어 짓히고 넓은 밤하늘을 배경으로 허 노인은 흰 옷에 조명을 받으며 줄을 건너는 것이었는데, 발을 움직이는 것 같지도 않게 그냥 흘러가듯 조용히 줄을 건너가는 노인의 모습은 유령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땅 위에서 하품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이상한 것은 그렇게 줄을 타는 허 노인이었지만 줄에서 내려오면 그의 운몸은 언제나 땀에 흠뻑 젖어 있곤 했던 것이다. 그리고 단장은 그런 허 노인의 줄타기를 몹시도 싫어했다.

— 구경꾼 놈들의 간덩이를 덜컹덜컹 놀라게 해 주란 말야. 재주를 좀 부려, 재주들.

단장은 허 노인을 매번 나무랐다. 허 노인은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대꾸도 못 하고 땀만 뻘뻘 흘러다간 단장 앞을 물러나 오곤 했었다. 그러나 **그 다음날**도 허 노인은 여전히 전처럼 줄을 타는 것이었다. 운은 누가 뭐래도 허 노인이 그렇게 줄을 타는 것이 좋았고, 자기도 그렇게 줄을 탈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줄 위에서 그렇게 유연하던 노인의 발길이 한 번 변을 일으켰다. 딱 한 번 노인의 발길이 가볍게 허공을 차는 듯한 동작을 하더니 줄이 잠시 상하 반응을 했다. 허 노인은 가만히 몸을 지탱하고 있다가 곧 다시 줄을 건너갔다. 누구도 그것을 실수로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 객석에 눈을 두고 있던 단장은 거기서 일어나는 무의식적인 함성에 놀라 하늘을 쳐다보았으나 줄이 상하로 조금씩 움직이는 것밖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알 수 없었던 것이다.

“허 노인이 줄을 잘 탔다고 하는 것은 운의 생각입니까, 혹은 노인의 생각입니까?”

나는 트럼펫의 사내가 숨을 좀 돌리게 하기 위하여 이야기로 뛰어들었다. 사내는 한마디 말을 하기 위해서 거의 한 번씩 숨을 들이쉬었다.

“그건 물론 운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노인께서 운의 생각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렇지요. 하지만 이렇게 누워서 많이 생각을 했지요. 그리고 운은 나와 나이가 가장 가까웠으니까 제가 그의 심중을 비교적 많이 이해하는 편이었고, 그도 제게만은 조금씩 얘기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벌써 나팔장이가 다 되었으니까 웬만큼 나팔을 불어 주고 남은 시간을 대개 그 부자가 지내는 뒷마당에서 보냈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허 노인이 한 번 발을 헛디뎠던 다음날이었지요. 마침 그 날도 나는 운이 줄타기 연습을 하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날은 허 노인이 아들의 줄타기를 보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줄 위에 있는 운이 아니라 무섭도록 줄을 쏘아보고 있는 노인의 눈과 땀이 송송 솟고 있는 이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 노인은 갑자기 ‘이놈아!’ 하고 벽력같은 소리를 지르면서 줄 밑으로 내닫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야 나는 줄 위를 쳐다보았지요, 그런데 운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한 채 그냥 줄을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 이놈…… 너는 이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느냐?

운이 줄을 내려왔을 때 노인이 호령을 했으나, 그는 역시 어리둥절해 있기만 했어요. 내가 놀란 것은 그때 허 노인이 빙그레 웃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는 그 길로 곧 함께 주막 술집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사내의 이야기는 다시 계속되었다.

그날 주막에서 허 노인은 운에게 술잔을 따라 주고, 그날 밤으로 운을 줄로 오르라고 했다.

— 줄 끝이 멀리 보여서는 더욱 안 되지만, 가깝고 넓어 보여서도 안 되는 법이다. 그 줄이라는 것이 눈에서 아주 사라져 버리고, 줄에만 올라서면 거기만의 자유로운 세상이 있어야 하는 게야. 제일 위험한 것은 눈과 귀가 열리는 것이다. 줄에서는 눈이 없어야 하고 귀가 열리지 않아야 하고 생각이 땅에 머무르지 않아야 한단 말이다.

노인은 조용조용 당부를 했다. 그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노인의 일생을 몇 개로 잘라서 압축해 놓은 듯한 무게와 힘과, 그리고 알 수 없는 깊이를 지니고 있었다. 자기의 전생애를 운에게 떠넘겨주려는 듯한 안간힘이 거기에는 있는 것 같았다. 운은 비로소 허 노인이 끝끝내 줄타기 자세를 바꾸지 못하는 내력을 알 것 같았다.

— 아버지, 이젠 줄을 그만두시고 좀 쉬십시오.

운이 말했으나 노인은 조용히 머리를 가로저었다.

— 줄에서 내 발바닥의 기력이 다했다고 다른 곳을 밟고 살겠느냐? 같이 타자.

그날 밤, 줄에는 두 사람이 함께 올라섰다. 운이 앞을 서고 허 노인이 뒤를 따랐다. 운이 줄을 다 건넌을 때는 객석이 뒤숭숭하니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뒤를 따르던 허 노인이 줄에서 떨어져 이미 운명을 하고 만 뒤였다.

— 이청준, 「줄」 —

24. 윗글을 <보기>와 같이 구조화할 때,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A] 외부 이야기	
[B] 내부 이야기	

- ① 신문 기자인 ‘나’는 [A]의 서술자이다.
- ② 신문 기자인 ‘나’는 [B]에 등장하지 않는다.
- ③ ‘사내’는 [B]를 신문 기자인 ‘나’에게 전해 준다.
- ④ [B]에서 ‘사내’는 ‘허 노인’과 갈등 관계에 놓여 있다.
- ⑤ [B]의 사건들은 [A]의 사건들보다 시간상 앞서서 발생했다.

25. 윗글의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 다음날	- 허 노인이 평소와 다름없이 줄을 탐.	 ①
↓		
어느 날 밤	- 허 노인이 줄 위에서 발을 헛디뎠.	 ②
	- 허 노인의 실수를 단장이 눈치채고 못마땅해 함.	 ③
↓		
다음날	- 운이 허 노인에게서 무대의 줄에 올라도 좋다는 허락을 받음.	 ④
	- 허 노인이 운과 함께 줄을 타다 줄에서 떨어져 죽음.	 ⑤

26.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운의 귀가 열리지 않았는지 시험하기 위한 행동이군.
- ② 운의 생각이 땅에 머물고 있음을 한탄하는 행동이군.
- ③ 운의 잘못된 줄타기 자세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행동이군.
- ④ 운의 줄타기가 높은 경지에 도달한 것을 기뻐하는 행동이군.
- ⑤ 운이 자신의 가르침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을 질책하기 위한 행동이군.

27.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청준은 예술가나 장인들의 세계를 다룬 작품을 많이 썼다. 이들은 세속적 가치를 강요하는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자신들의 엄격성을 지키려는 인간들이다. 또한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극복하고 예술혼을 고양시켜 근원적인 삶의 의미를 발견하려 애쓰는 인물들이다.

- ① 재주를 부리라는 단장의 요구는 ‘허 노인’이 지키려는 장인으로서의 엄격성에 대한 침해로 해석할 수 있겠군.
- ② 마지막까지 ‘줄’이라는 공간을 벗어나지 않으려 하는 ‘허 노인’은 전형적인 장인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군.
- ③ ‘허 노인’이 단장의 질책에, 줄타기를 할 때처럼 땀을 흘리는 것은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극복하려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군.
- ④ ‘줄 위에는 자유로운 세상이 있어야 한다’는 ‘허 노인’의 말에는 일생을 통해 깨달은 근원적인 삶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군.
- ⑤ ‘허 노인’이 줄타기 자세를 바꾸지 못하는 것은 세속적 가치에 영합하지 않고 자신의 예술 세계를 지키려는 태도와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겠군.

◆ 10년 6월 고1 32~35번

[32~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무엇보다도 콧 서방이 서 영감을 애걸의 상대로 먼저 생각하게 된 것은 그가 콧 서방의 매잡이 일에 제일 간섭이 심했기 때문이었다. 다른 마을 사람들은 벌써 콧 서방을 절반이나 낚이나간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데 비해 서 영감은 그래도 그러는 콧 서방을 한사코 나무라 들기라도 해오고 있었다. 그래서 콧 서방은 오히려 그 영감에게서 자기 사정을 이야기할 만한 틈을 본 것이다. 그 날 밤으로 콧 서방은 서 영감을 찾아갔다. 영감은 펄쩍 뛰었다. 막연히나마 이미 짐작을 하고 간 일이었다. 콧 서방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비로소 그의 매가 떠나 버린 것을 안 서 영감은, 그것 참 매란 놈이 콧 서방 사람될 기회를 주느라고 그리 된 것이라며 다행스러워하기부터 시작했다.

“이제 딱 마음을 잡고 딱 일을 손대 보게. 우리 집에서도 할 일이 많으니. 그간 자넨 매라는 놈에게 미쳐 있었지. 한테 그 매 귀신이 체풀에 떠나주질 않았나.”

㉠ “모래 장터로 번개쇠의 기별이 올 텐데요.”

콧 서방은 고집스럽게 말했다.

“글쎄, 내 생각 같아선 요즘 어느 낚나간 녀석이 그런 걸 찾아주겠다고 건드려건드려 장터로 매를 가지고 나올 턱도 없지만, 또 오면 어때. 모른 채해 버리든지 자네 병 여윈 셈치구 그 사람더러 아주 가져다 매를 모시라지.”

“하지만 그런 짓을…….”

“하여튼 나는 매 값을 낼 수 없어. 그런 줄 알게. 그러구 절대루 장날 기별을 보내올 놈도 없어. 만약 그런 놈이 있다면 진짜 후리배지.”

㉡ 콧 서방은 물러 나왔다.

㉢ “매 소리를 하겠거든 다시 내 집에 발을 들여놓지 말게. 인간이 불쌍해서 그쯤 알아듣게 살 궁리를 해보라고 했으면 귀가 좀 뚫릴 법도 한데 원 사람이라군…….”

그런 소리를 뒤에 남기고 버버리네 아랫방으로 돌아온 콧 서방은 밥도 굶고 생각에만 잠겨 있었다. 밤이 늦어서야 버버리 소년이 부엌을 뒤져다 준 식은 밥덩이를 목구멍으로 조금 넘기고 나서, 콧 서방은 거의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 - 에이 번개쇠놈, 아무리 생각이 없는 날짐승이기로서니…….

그러나 다음 날 오후 늦게 콧 서방은 또 다시 서 영감을 찾아갔다. 장날을 하루 앞두고 먼저 마을로 번개쇠의 기별이 들어왔던 것이다. ㉤ 삼십 리 바깥 천관리(天冠里) 마을로 대낮에 매가 들어왔다고 천관리를 지나 들어온 마을 사람이 기별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매주는 내일 장으로 매를 가지러 나오라더라는 것이었다.

“큰 병일세 그러. 그래 자네 요즘 매를 부려서 평을 한 마리나 잡은 일이 있나, 마을에서 물이를 나서 주나. 대관절 그건 찾아다 뭘 하겠다는 건가, 이 갑갑한 사람아.”

영감은 이제 화를 내지도 못하고 답답해 못 견디겠다는 듯 콧 서방을 건너다 보았다.

“사냥을 못 하더라도, 기별이 왔는데 모른 채하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 자네가 지금 도리를 찾을 땐가.”

“…….”

콧 서방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침묵은 영감의 말에 승복을 하고 있는 증거는 아니었다. 오히려 바위처럼 버티고 앉아 있는 모양이 서 영감이 무슨 말을 하든 기어코 매 값

만은 받아야겠다는 결심을 다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내 매 값 몇 푼이 아까워서가 아니야. 매를 찾아오면 또 자네 꼬락서니가 못 보겠다는 말야.”

“저도 사냥이 문제가 아니예요. 이제 사냥은 되지도 않구요.”

“그럼 자넨 지금 정말로 그 매주의 도리라는 것 때문에 이러는 것인가?”

서 영감의 목소리가 갑자기 은근해졌다.

“하여튼 번개쇠를 찾아야겠어요.”

“그럼 약속해 주겠나?”

영감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자꾸 목소리가 낮아졌다. 콧 서방은 영문을 몰라 처음으로 영감을 정시했다.

㉥ “매를 찾지만 하고 사냥 따윈 다시 나서지 않는다고.”

“…….”

콧 서방은 또 다시 입을 다물어 버렸다.

“매는 찾아오되 매병은 가져오지 말라는 말일세. 실상은 나도 전혀 자네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 왜 나도 전에는 자네들을 부리지 않았나. 하지만 지금은 달라. 내가 미쳤다고 뭐 얻어먹은 것 없이 자네 하는 일을 못 마땅해 하겠나. 세상이 그러서는 안 되겠기에, 더구나 자넨 선량한 줄 내가 아는 터라 좀 사람다운 대접을 받게 되라고 이르는 거지. 나도 실상 어떤 때는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잘 모르게 될 때가 많기는 하지. 하지만 어쨌든 자네가 지금 이런 곤욕을 당하고 있는 것은 그 매라는 놈 때문이 아닌가 말일세.”

결국 그 날 영감은 하고 싶은 말을 실컷 다하고나서 쌀 한 말 값을 내놓았다. 그 돈으로 매를 찾아오더라도 절대로 다시 사냥을 나서지 않는다는 조건에서라고 몇 번씩이나 다짐을 했다. 그러나 콧 서방은 돈을 움켜쥐고 나오면서 끝내 거기 대한 약속의 말을 하지는 않았다. 시류를 좇아서 사는 사람들은 그 시류에 맞춰 생활을 잘 요리해 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그 시류에 민감하고 영리하게 적응하는가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며 스스로 만족한다- 콧 서방은 영감의 집을 나오면서 어렴풋이나마 그 비슷한 생각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콧 서방은 실상 그 이전부터 벌써 그것을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영감이 그렇게 콧 서방을 걱정해 주고 충고를 해 주는데도 콧 서방이 한 번도 그것을 고맙게 생각해 본 일이 없다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청준, 「매잡이」-

32 위 글의 서술상의 특징과 그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를 회상하듯 서술하여 인물의 심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② 서술자가 인물에 대한 논평을 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비유적인 언어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배경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인물의 내적 갈등을 중심으로 서술하여 힘든 현실을 극복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이 변하는 모습을 제시하여 이야기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33. ㉠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낸 것은?

- ① 번개쇠의 행방을 찾는 것을 포기하려고 한다.
- ② 번개쇠로 인해 생긴 손실을 아까워하고 있다.
- ③ 번개쇠를 돌려받지 못한 냉정한 현실을 한탄하고 있다.
- ④ 번개쇠를 지금까지 잘 돌보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 ⑤ 번개쇠를 더 이상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안타까워 하고 있다.

34. 위 글을 영화로 제작하려고 할 때, ㉡~㉤에 대한 제작 회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광 서방이 말할 때 고집스러운 표정이 드러나도록 클로즈업하게 한다.
- ② ㉢ : 광 서방이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적 배경을 밤으로 설정하게 한다.
- ③ ㉣ : 서 영감은 광 서방이 돌아서 가는 모습 뒤에서 말하도록 한다.
- ④ ㉤ : 광 서방의 번개쇠가 대낮에 천관리로 날아드는 장면을 오버랩하게 한다.
- ⑤ ㉤ : 서 영감의 단호한 태도가 드러나도록 무거운 음악을 사용하게 한다.

35.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매잡이」는 요즈음 쉽게 볼 수 없는 매 부리는 사람을 통해 인물의 상처를 드러내고 있다. 또 이 작품에 나타난 장인(匠人)들은 물질적인 가치의 지배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직업을 죽을 때까지 고수한다. 하지만 이들의 직업은 오늘날의 막강한 산업화 때문에 사라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현대 산업 사회의 피해자라 할 수 있다. 작가는 이와 같이 상처받고 사라져 가는 전통을 지키고자 몸부림치는 장인을 그려냈다고 할 수 있다.

- ① 광 서방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웃음으로써 현실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자 한다.
- ② 광 서방은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서 영감에게 도움을 받지만 자기의 가치관을 고수한다.
- ③ 광 서방을 통해 산업화로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 준다.
- ④ 광 서방이 지키고자 했던 매잡이는 오늘날 사라져가는 직업임을 알 수 있다.
- ⑤ 광 서방을 통해 시대의 변화에도 옛것을 지키려는 장인의 모습을 보여 준다.